

국내 ESCO,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엿보다

정부에서는 해외 ESCO 진출을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에 국내 ESCO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국내 굴지의 ESCO기업 담당자들을 통해 들어보았다. (참여 ESCO : GS네오텍, LIG엔설팅, A기업)

Q1 해외 ESCO사업 투자 시 장애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GS네오텍: 우선 사업발굴이 어려운 점을 꼽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국내보다 에너지사용설비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고객발굴이 어려운 편입니다.

A기업: 현지법인이나 에이전트를 통해 고객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 및 해당국가의 법규, 세제 등 전문지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 또한 국내에 비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회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죠.

LIG엔설팅: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는 장기간 회수해야 하는 ESCO시설투자자금의 채권회수 위험을 키우게 되죠. ESCO투자업체의 신용평가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설사 문제없이 투자사업을 유치하더라도 채권 회수 시점에서 국제간 자금이동 제약조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A기업: 이런 위험을 감안해서 투자기업에 위험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회수 보증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LIG엔설팅: 회수기간이 긴 만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 또한 무시할 수 없겠죠.

A기업: 예.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 ESCO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Q2 가장 큰 문제는 해외투자사업의 위험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 정책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응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LIG엔설팅: ESCO투자사업의 채권회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해외 현지 금융권과 연계한 금융지원 혹은 보증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위험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GS네오텍: 그렇다면 금융투자자와의 연대 방안이 필요하겠군요.

LIG엔설팅: 채권회수뿐 아니라 환율변동 위험 또한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절실합니다. 수출보험공사 등과 연계해서 환변동보험 등 위험 경감용 상품을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기업: 해외 ESCO사업에 대한 법규 전문가 또한 필요합니다. 각 국가마다 ESCO정책이 상이한 만큼 전문가를 통해 정보 수집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국가간 ESCO사업 지원채널을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네요.

GS네오텍: 그렇다면 이견 어떨까요? ESCO사업을 성과보증방식으로 추진한다면 투자금 회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은 각 기업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3 이 외에도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건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LIG엔설팅: 해외ESCO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는 정부, 기관 주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해외업체 수요조사, 현지금융조달, 표준계약서 작성 및 현지법규 등의 정보 혹은 혜택 등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면 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GS네오텍: 투자비용 회수 문제가 큰 만큼, 정부의 사업보증, 지급보증 및 금융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위험 및 환차손 위험을 생각하면 3%이하의 저금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기업: 해외ESCO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해외ESCO정책 담당부서와 보다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해외 ESCO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ESCO업계의 선봉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들은 ESCO해외진출의 장애물로 현지 시장, 법규 등 정보부족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및 회수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을 꼽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ESCO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정보수집 및 국가간 사업지원채널을 구축하고 금융지원 및 자금회수보증 등 연대 방안을 마련해 채권회수위험과 환차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실무자들은 입을 모아 주장했다. 정책지원뿐 아니라 성과보증계약추진과 같은 기업 자체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의 노력과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해외 ESCO진출이라는 결실을 맺고, 이를 발판으로 ESCO산업이 한 단계 발전해 나아가는 순간이 조만간 다가오리라 기대한다.